

# “청년들이여, 불평등에 분노하고 행동하라”

##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지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성공신화를 썼다. 1960년대 초 85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대 말 1709달러로 경총 뛰어오르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다. 1994년에 1만 달러, 2006년에 2만 달러, 2014년에 2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짧은 기간의 눈부신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자리 간의 불균형, 노동자 간의 불균형, 기업 간의 불균형, 세대간의 불균형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위치로 추락했다. 게다가 경제성장의 하락



이 뒤따랐다. 한국 사회의 분배의 형평성과 소득 불균형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경제학자이자 실천운동가인 장하성 고려

대 경영대학 교수가 최근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진단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펴냈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는 전작 ‘한국자본주의’에 이은 ‘한국자본주의 II’이다.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불평등에 대

해 미처 몰랐던 것들-분배는 왜 실패했는가? ▲아직, 방법은 있다-그래도 분배가 중요한 이유 ▲정의로운 분배의 미래-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등 총 3부 9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2부에서는 누가 불평등을 만들고, 해소방안은 있는지 고찰해본다. 3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누가 고칠 것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국내외 방대한 문헌과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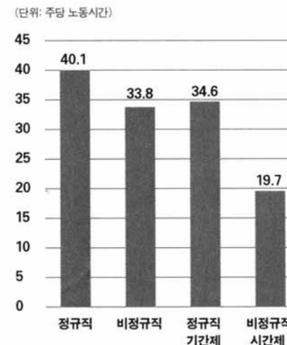
저자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로 고용 불평등을 꼽는다. 한국은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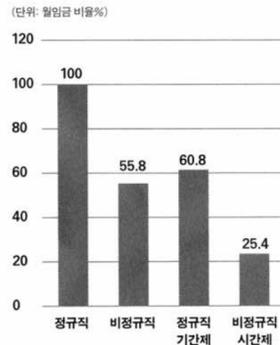
한국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계는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으로 생활한다. 특히 전체 노동자중 3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수준 임금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는 다수의 기간제가 시간제로 대체되면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다.

경제 세 주체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차별(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거대 불평등이 심하다. 재벌 100대 기업은 전체 일자리의 4%밖에 고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기업의 순이익 6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72%를 고용하지만 35%의 순이익을 차지할 뿐이다. 이는 재벌 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임금 비율



기업이 가계에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을 분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돌아가 할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 및 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

대에게 제시한다. 청년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행동을 요구하고, 정치참여와 같은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헤이북스·2만2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일본서 가장 적은 두 평짜리 서점 헌책방·역사·시장 사람들 이야기

###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우다 도모코 펴냄

부산 보수동 헌책방 거리에는 볼거리가 많다. 규모가 꽤 큰 서점들도 많지만 구석 구석 박힌 작은 헌책방들도 눈에 띈다. 온라인 서점에 밀려 오프라인 서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국의 골목 골목에 특색을 갖춘 작은 책방들이 문을 열고 있다.

어른 세명이 들어가면 딱 들어차 두 평짜리 이 작은 서점은 시장 안에 있다. 이웃은 가쓰오 부시 가게와 쓰게모노(일본식 채소 절임) 가게와 옷 가게다.

우다 도모코가 펴낸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는 일본에서 가장 작은 서점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일본 대형 서점인 준코도 직원이었다. 준코도 서점이 오키나와에 지점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자원 해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이주했다. 서점 일을 하며 오키나와 관련 책들에 흥미를 갖게 됐고, 2년 후 아예 헌책방 주인이 된다.

그녀가 인수한 도쿠후쿠 헌책방은 ‘일본에서 가장 작은 헌책방’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그녀는 ‘올



랄라’라는 간판을 달았다. ‘올랄라’가 취급하는 책은 주로 오키나와와 관련된 책이다. 인

문, 문학, 실용, 예술 서적 등을 갖추고 있다.

인구 140만명 규모의 오키나와 출판 문화는 독특하다. 유난히 현지 출판사가 많아 오키나와 현에 있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가리키는 ‘오키나와 현산 책’이라는 용어도 따로 있다. 주민들은 오키나와의 역사, 문화를 다루거나 오키나와 출신 저자가 쓴 오키나와 관련 책들에 관심이 많다. 1879년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 류큐 왕국으로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한 자부심의 반영이다.

그녀가 들려주는 헌책방 이야기, 시장 사람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곳에선 커피 노점에서든 때때로 헌책을 팔고, 떡집에서도 책을 판다. 책을 읽다보면 그녀의 헌책방에 꼭 한 번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휴형출판·1만3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땅이 의사에게 가르쳐준 것=하버드대에서 의과박사 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는 저자가, 2년에 걸쳐 이룬 농장 여섯 곳을 찾아가 머물며 농부들을 인터뷰했다. 생태농장, 목축업, 와이너리와 허브농장, 대도시 도시텃밭을 일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농업의 과학기술, 그와 관련된 의료계의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농장과 연결하는 치유 비결을 찾아 환자들의 치유 과정에 도입했다. <시금치·1만8000원>

▲카메라와 앞치마=스타 셰프 최현석과 사진가 조선희가 함께 쓴 푸드 에세이, 사진과 요리라는 분야에서 손꼽히는 두 사람이 만나 음식을 주제로 한 특별한 에세이를 선보인다. 탁월한 요리와 그 요리를 빛나게 할 감각적인 사진과 레시피, 무엇보다 두 사람이 속내를 터놓고 들려주는 진솔한 삶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읽고



공감하며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 대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민음사·1만5500원>

▲할머니 탐구 생활=‘할머니’라는 지혜의 창고에서 발견한 삶의 보물들. 저자 정정라는 20대 후반에 귀농해 현재는 열거구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영농후계자와 결혼 후 아이 둘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다. 책은 저자가 이웃 주민의 대부분인 할머니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저자가 깨달은 그들의 생명력과 지혜, 아름다움을 따뜻하게 담은 글로 채워져 있다. 여덟 명의 할머니 이야기가 저자 가족 이야기와 어울려 아름답게 펼쳐진다. <산티·1만5000원>



▲심리부검=심리부검에 대해 국내 학자가 쓴 최초의 책. 심리부검은 자료 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 미국 수사 기관에서 자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자살 동기를 탐문하는 절차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첫 단계로 인식돼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책은 40여 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리부검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재·1만5000원>

▲마케팅은 생존이다=지금의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고 싶을 때,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고자 할 때, 마케팅의 중

요소를 공유하고 실행해야 할 때 꺼내야 할 실전형 지침서. 책은 대부분의 기업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생산에만 열중하다가 뒤늦게 마케팅을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저자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현장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CEO 및 임직원들이 마케팅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했다. <북스톤·1만5000원>

▲국경을 넘은 한국사=이슬람 성지학도로는 어떻게 조선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 이성계가 아인이던 시절 그를 지킨 27인의 여진족 추장들은 누구일까.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시베리아 코리족 출신일까... 이슬람 속 신라에서 조선 속 몽골까지 한국사 속 세계사, 세계사 속 한국사를 입체적으로 통찰하며 한 권에 담은 역사서가 나왔다. 저자는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사 속에서 숨 쉬는 세계사를 되살려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김영사·1만3000원>

## 어린이 책

▲전래동화 속 헌책방이야기=선녀의 날개옷을 주지 않은 나무꾼에게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통해 주권자로서 꼭 알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알려주는 동화책. 헌책방 판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헌책방을 내는지를 아이들 눈높이로 알려준다. <플러스에감·1만원>



▲도와줘, 늑대가 나타났어!=기울이고 흔들리고 뒤집는 흥겨운 놀이를 유도하는 그림책. 그림속 늑대를 피해 책장을 넘기

지만, 늑대는 책장을 넘길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늑대를 피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책을 마구 기울이고 흔들고 뒤집게 되는 즐거운 그림책이다. <길벗어린이·1만원>

▲명화는 내친구: 인상주의=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미술작품 감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쁨을 깨닫도록 집필된 책. 이야기 형식의 서술 방식으로 어린이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감상자에 따라 매

우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트텔링·1만3500원>

▲생각하는 건축=‘예술 좀 하는 어린이’ 시리즈. 1권 ‘생각하는 건축’, 2권 ‘상상하는 디자인’, 3권 ‘꿈꾸는 현대미술’이 나왔다. 생각하는 건축에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서른다섯 가지 특별한 집들을 소개하고 집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건축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유쾌하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집의 구조와 기능도 알려준다. <폴빛·각 권 1만5000원>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중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